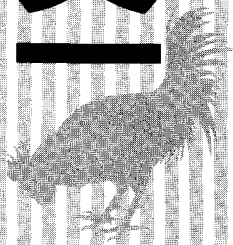


해외양계뉴스



미국

1,400만수 규모 Buckeye 산란계 농장 폐쇄조치 될 듯

미국 오하이오주 버키아이 지방의 Buckeye 산란계 농장이 금년 10월까지 폐쇄조치될 예정이다. 오하이오주는 이 농장에 대해 공해, 환경오염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 농가를 폐쇄조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이후 2년동안 새로운 매니저를 두고 환경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이 조치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의 규모는 90개 계사에서 1,400만수의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으며, 1년에 26억개(미국 전체 생산량의 4%)를 생산하는 농장으로 지난 11월 2개농장이 폐쇄조치된 이후 금년 10월까지 모든 농장에 대해 폐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2005년 1월까지 는 농장의 계분도 모두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WP)

캐나다

난각이 강한 계란, 안정성 높아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난각이 강한 계란을 생산하는 닭 개발에 나섰다. 난각이 강한 닭은 오히려 살모넬라균으로부터의 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난각이 약한 닭보다 안전성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각이 강한 계란은 살모넬라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난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10개의 단백질이 역할을 하면서 난각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본격적인 육종개발사업에 들어갔다.(WP)

일본

훈제계란 인기 급증

일본에서는 최근 훈제계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개발된 훈제계란은 홋카이도에 위치한 유니텍스사가 기존의 계란보다 싸고 빠르고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이 계란은 높은

볼트의 전기를 이용하여 훈제되는데 향신료 등을 넣어 보다 맛있는 계란을 만들며, 습도가 먹기 적당할 정도로 조절되어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술은 독일의 유니렉스사와 제휴하면서 독일에서도 판매에 들어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P)

## 태국

### 지난해 계란수출 400% 증가

태국의 계란 수출량이 지난해 400%가까이 증가하면서 태국 양계인들을 즐겁게 하였다. 채란 농장을 소유하고 계란수출입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아씨에 따르면 지난해 7개월동안 300콘테이너에 달하는 계란을 수출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약 577콘테이너의 수출물량을 선적하면서 전년보다 약 389% 증가를 보일 것이라 전해왔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이상기온 현상은 물론 유럽, 홍콩지역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출이 큰폭 증가하였는데, 주요 수출국은 홍콩으로 수출가격은 47.3원(1.5바트)인 것으로 나타났다.(AP)

## 네덜란드

### 북한에 Hisex 브라운 산란종계 수출

네덜란드의 육종회사인 헨드릭스사는 지난 8월 북한에 하이섹스브라운 산란종계를 처녀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한 회사는 북한의 고려형성그룹으로 지난 1972년 설립되어 양계분야 뿐만아니라 타분야(농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네덜란드의 헨드릭스사는 전 세계적으로 원종계 및 종계를 수출하

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WP)

## 우간다

### 생산감소로 양계산물 가격 2배 상승

우간다의 양계사육수수가 사료가격 상승, 가뭄 등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생산량이 20%가까이 줄면서 가격이 2배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들도 인플레이션, 실업증가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안좋아 소비도 함께 감소하면서 생산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을 보면 닭고기의 경우 소매가격이 kg당 2천 실링(1,200원)이던 것이 3천실링(1,800원)으로 30개들이 계란가격은 2천실링(1,200원)에서 2천7백 실링(1,620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가운데 중동으로 양계산물을 처음 수출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데 우간다는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 연간 1만 톤정도의 물량을 수출할 예정에 있다.(PI)

## 덴마크

### 백신 사용 크게 늘어

덴마크 양계산업이 전염병 등 미래의 닭 질병에 대한 공포로 인해 백신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뉴캐슬병 발생에 따른 피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타 질병이 다시 발병할 경우 양계업계의 붕괴가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계산물의 수출전선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덴마크의 대형 농장들이 자체 물량을 줄여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AP)